

정조시대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화장문화(化粧文化)와 수발문화(鬚髮文化)의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Make-up and Hair Styling Cultures of the King Jeongjo and the Edo Period

김민경*

숭실대학교 대학원 환경화학공학과 박사과정

Kim Min Kyung*

Dept. of Chemical & Environmental Eng. Doctoral Program Soongsil Univ.

Abstract

In the Edo period speaking of hair culture, common women wore decorative pigtail ribbons on the right, and twisted from side to side their tressed hair in such a manner as ungeunmeori and traemeori. Instead of gachae, common women used gogae made of their own hair, ungeunmeori on forehead, or jjokjinmeori at the back of head. During the Edo period, people women naturally exposed their necklines as a way of exposing their faces in the aesthetically ceremonial act of wearing make-up. As for lipsticks, they rouged extracts from red petals of safflowers mainly on their lips, and sometimes on their cheeks by blending this with white powder. Samurai families disliked women who wore thick lip makeup. In the latter period, women painted their necklines or foreheads black, applied a small amount of rouge on their cheeks thinly or thickly, and colored a reddish color into their fingernails by using petals and leaves of balsam flowers. Despite the chronological and spatial proximity of the King Jeongjo period and the Edo perio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similarities between two countries' cosmetic cultures. Moreover, it was discovered that current TV dramas were being produced, even not based on historical evidence in the Jeongjo period

Key Words : color make-up, the wearing of gachae, jjokjinmeori, ungeunmeori, rouge

I. 서론

1. 연구방법

조선시대 문화 번성기인 정조시대를 중심으로 영화나 TV드라마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허나 제대로 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당대의 문화를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10월부터 방송되었던 SBS 방송국에서 제작한 "바람의 화원"을 통해서 보면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을 통하여 당대의 문화를 엿 볼 수 있다. 김홍도는 정조의 총애를 받아 일본까지 보내어져 일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정조에게 일본의 문화와 생활을 보여 진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정조시대의 화장 문화와 일본의 에도 중기 때의 문화를 비교 분석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머리 형태는 인종, 풍토, 그 시대의 미에 대한 의식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 정치, 성별, 연령, 직업과 신분을 나타내며 복식과 여러 가지 부장품과 더불어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어떠한 시대보다 조선시대는 머리 형태가 다양하였다. 유교사상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상하·존비·귀천의 신분(身分) 구별과 남녀의 내외법(內外法)이 엄격했던 시대로 자유롭게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던 여인들은 자신의 욕구를 다른 쪽으로 발산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나 朝鮮時代 여성복식의 구조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대보다 수발

* Corresponding author: Min Kyung Kim
Tel: 010-3776-4567
E-mail: nadya@daum.net

형태가 더욱 발전 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의 화장 문화와 수발형태 그리고 복식을 정조 때로 국한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외장(外裝)은 조선시대에서도 어떤 임금의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미의식과 화장재료도 점차 변모해 왔지만,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한국의 미의식은 예로부터 생활 속에 깊이 새겨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내면적으로는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미의식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목욕을 즐겼거나 천연재료 등을 이용한 화장품 사용을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다.

2. 연구방법과 목적

본 연구에서 정조(正祖) 때의 화장문화와 수발형태를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 나오는 등장인물에게 연출되어진 화장과 수발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당대의 화가인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을 통하여 당대의 문화를 고증하고자 한다.

정조와 동시대의 일본의 에도시대의 문화 비교분석하여 조선시대와 일본과의 문화를 비교하고 한다.

II. 정조시대

1. 화장문화

기생들의 화장은 머릿기름을 윤기 있게 바르고 눈썹을 다듬어 반달처럼 가늘게 그리며 뺨은 복숭아처럼, 입술은 앵두같이 연지를 칠하는 것이었다.

조선조에 있어서 화장문화(化粧文化)는 여염집 부녀자들보다 기녀(妓女)나 궁녀와 같은 특수직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여염집 여인들로부터 화장이 전혀 도외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화장을 하지 않았으나 손님을 맞을 때나 나들이 할 때는 반드시 화장을 했었다. 그러나 이때의 화장도 자신이 기녀로 오인 받는 것을 우려해 얇게 하였으며 조선 말엽에는 복숭아 빛 분이 나오면서 여염집 여인들은 흰 색 분을 바르는 등 기녀와 차등을 두고자 의식적으로 바르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가정백과라고 말해도 좋을 「규합

총서」는 빙허각 이씨(憑虛閣李氏, 1759~1824)의 저술인데, 회고 옥 같은 피부가 이상형이었음을 알려준다. 「규합총서」에는 또 몸을 향기롭게 하는 법(香身方)과, 머리카락을 길고 검고 윤기 나게 하는 법(黑髮長潤法)도 소개되어 있다.

평상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부터 남녀는 이미 피부 손질 위주인 담장(談粧)이 주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동양에서는 적색에 대해 강한 주술성(呪術性)을 부여하여 적색(赤色)은 고대 색조화장의 가장 중요한 색상이었다. 피와 같은 붉은 색에 악마나 악령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어 붉은 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의 부적에서도 주색축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건강과 젊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동서양의 여성들은 혈색표현에는 피의 색과 유사한 붉은 계열의 색조를 사용하여 왔다. 뺨에 혈색을 주어 여성스러움과 화사함을 보여주고 젊고 발달한 건강미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였다.

눈 화장이 매우 발달해 미묵(眉墨)으로 검게 칠하던 이전과는 달리 아이 췌도우 같은 색조화장이 성행했다.(그림 1)

눈썹의 곡선은 당시 버들눈썹이 유행이었으므로 눈을 중심으로 약간 휘게 그려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신윤복의 작품 속의 미인들이 한결같이 가는 곡선형의 눈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눈썹이 일반적이었는데 남자들이 예찬한 미인의 눈썹에 관한 표현에 “가늘고 수나비 앉은 눈썹”이라는 표현에서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남자의 눈썹은 술이 많고 ‘八’자형이면 무난하게 여기고 여자의 눈썹은 가늘고 동그랗게 휘어지면 좋게 여긴바 사대부 여성들의 백과 사전적인 ‘규합총서」에 열 가지의 눈썹모양이 소개되어 있을 만큼 눈썹 화장에 신중을 기하였다. 화장품을 분대라고 부를 만큼 눈썹먹이 백분에 버금가는 필수품이었으며 아황(鴉黃)이라는 붓으로 눈썹을 그렸다.

(그림 1)의 신윤복의 미인도에 나타는 여인의 모습에서 보면 트레머리에 동그랗고 작은 얼굴에 통통한 뺨에 붉은 입술, 가느다란 초승달 같은 눈썹이 인상적이다. 분은 물에 갠 분을 얼굴표면에 발랐다가 물로 씻어내는 분세수는 백분을 풀어 세수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 분세수는 조선시대 남녀를 불문하고 사용했다. 일반 여성들의 경우는 혼례식과 같이 자신의 아름다움이 한층 돋보여야 할 때 이러한 분세수를 했으며 기녀와 임금의 눈에 띄기를 바라는 궁녀들은 자신을 가꾸는 방법으로 분세수를 이용하였다.

‘여용국평란기’라는 한글소설이 있는데 소설은 언제 누가 지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 설과 동일한 내용



[그림 1] 미인도: 신운복 작.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2] 월야밀화: 신운복 작, 간송미술관 소장

인 ‘여용국전(女容國傳)’이 있다. ‘여용국평란기’를 ‘여용국전’으로 한역(漢譯)한 것인지, 아니면 ‘여용국전’을 알기 쉽게 ‘여용국평란기’로 옮긴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안정복(安滯福, 1712~1791)이라 추정한다. 이 소설에는 거울, 족집게, 모시실, 양칫대, 수건, 휘건¹⁾, 경대, 빗, 대야 등의 화장구와 백분, 연지, 머릿기름, 향수, 미안수 등의 화장품 등 모두 20여 가지가 등장한다. 이로써 200~250년 전의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여러 가지 화장품과 각종 화장구로 화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화장품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규모로 제조되었다. 백분의 경우 분꽃을 집주변에 심어 거둔 씨앗을 그늘에서 말려 맷돌로 빻고 비비고 체에 치는 과정으로 반복하여 제조 하였다. 사대부가의 생활지침서로 편집된 ‘규합총서’에 여러 가지 향 및 화장품의 제조방법이 수록된 사실을 보더라도 웬만한 대가(大家)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장품을 가내수공업 규모로 자가 제조한 까닭은 화장품의 제조가 용이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다.

2. 수발문화

서민층에서는 제 머리만으로 얹은머리 트레머리와 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양분하여 각각 땅아 좌우로 어긋나게 틀어 앞으로 장식대기를 오른쪽에 매었다.

평·서민 부녀자들은 가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머리로 만든 고계나 앞이마 쪽에 얹은머리 또는 뇌후의 쪽진 머리 등이 있었다. 존비제도가 심하던 때라 천인의 부녀자는 외출 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공사 노비는 제 머리만으로 꾸미게 하여 가체제도를 각별히 못하도록 하였다.

얹은머리는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명(明)의 수식을 본받은 가체로 말미암아 높아지기 시작하여 다투어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여 그 사치풍조와 폐단이극심하였다.(그림 2)

가체에 대한 논의는 영조 3년(1727)에서 정조 20년(1796)까지 70여 년 간 계속 되었다. 성종대의 고계는 사방 일척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왕조시대에 사용된 가장적인 주척(周尺)이 20.81cm이므로 최소한 21cm정도의 높이는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1계의 값이 중인 열개집의 재산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식으로는 중국에서 들여온 밀화석 황과 금옥주패 및 칠보 등의 보석장식에 고급비단으로 치장해 가사를 탕진하는 예도 적지 않았다. 가례 시에 사용한 체발의 모양은 인조 대에 40단, 효종 대에 48단, 단종 대에는 68단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체고계의 풍습은 마침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임진·병자 양란이후로 말미암은 폐단이 고질화되기에 이르렀다.(그림 3)

어여머리는 예장할 때 머리에 솜 족두리(어엄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가래로 된 큰머리를 얹어 옥판과 화잠으로



[그림 3] 고계: 손미정(2001), 한국여인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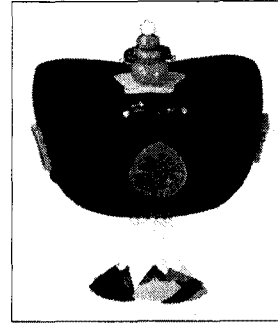
1) 휘건 : 머리 묶는데 사용

장식하였다. 이 어여머리는 띠구지머리에 버금가는 예장용으로 궁중에서나 반가 부녀들이 하였고 상국으로는 지밀상궁만이 하였는데 또야머리라고도 하였다. 어여머리는 가채 일곱 개를 같이 묶어 두 갈래로 땅아 어염족두리 위에 얹고 비녀와 매개뎡기로 고정시킨다.

정조 3년(1779) 2월에 나무로 된 띠구지가 궁중에 생겨났고, 정조 12년(1788)에 가채금지절목(加髻禁止節目)을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그 대략적 내용은 “사대부의 처첩과 궁궐의 부녀는 가채를 땅아 머리에 얹거나 본 발로 머리를 얹는 제도를 일체 금하며 체계에 대신하여 머리를 땅고 ‘쪽’으로 이를 대신하라. 머리에 쓰는 것으로는 족두리로 하되 금옥주패, 칠보와 같은 보석의 장식은 일체 금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조는 가채금지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절목까지 발표하였는데 가채가 오래된 습관이고 또 가정부녀의 일이니 만큼 국가 법령이 미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정조 16년에 발생한 가채사기사건에 의하면 몇몇 여자들이 체계를 단속하는 관청이라 사칭하고 여염집을 출입하면서 ‘다래(가채)’를 그냥 쓰거나 기타 절목에 위배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재물을 징수하다가 포도청에 붙잡혀 형조로 이송되어 업형을 받은 후 노비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²⁾. 이처럼 체계를 대신한 쪽진 머리체는 정조 재위 중에는 완전히 실사를 보지 못했으며 순조 중엽에 가서야 서서히 이루어졌다. 가채금지령으로 인해 왕비 및 세자빈이 칠보족두리를 쓰게 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나 칠보족두리를 과용하여 검소한 생활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령을 내린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양반가에서는 의식 때 소례복(小禮服)차림에 족두리를 썼는데, 노론(老論)은 솔 족두리, 소론(小論)은 홀 족두리를 사용하였다.(그림 4)

“증보문헌비고”에 “단군이 개구하던 첫해에 백성들에게 머리를 땅고 관모를 쓰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고 있어, 우리민족이 일찍부터 머리를 거들 줄 알고 또한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의 기록에 의하면, 부귀한 집안에서는 다리를 넣어 땅은 변체에 7~8만 냥을 소비하면서까지 높고 넓게 틀어 감아서 마치 말에서 떨어진 모양처럼 만들고 그 위에 옹황판(雌黃版), 법랑잠(法瑯簪), 진주와 아름다운 비단 등으로 장식하여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화관은 여성의 예복차림에 쓰이는 관으로서, 신라 문무왕 때 중국 복식이 들어오면서 함께 전래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에는 궁중에서 쓰였고 고려시대에는 귀족과 양반계급 부녀자 예복에 쓰였다. 조선시대 와서는 그 크기가 작아져 머리에 쓰는



[그림 4] 족두리

www.naver.com



[그림 5] 화관

www.naver.com

관모(冠帽)라기보다는 미적 장식품으로 얹는 수식(首飾)이 되었다.(그림 5)

조선중기까지 부녀자들의 의식용 머리 모양이었던 가채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자 영조, 정조 때 부녀자의 머리모양을 두고 족두리로 고치도록 하고 의식 때 가채 대신 족두리나 화관을 쓰게 함으로써 일반화되었는데, 서민들에게도 혼례시에 사용이 허용되었다. 관에 오색구슬로 꽃모양을 들렀고 뿔(뿔뿔) 나비를 달았다. 본래 귀족과 양반계급의 부녀자 예복에 쓰이던 화관의 장식이 점차로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지면서 또 다른 폐단을 낳게 되었다.

화관은 서민들의 혼례에 등장하여 오면서 한번 써보는 찬란한 예관으로서의 쓰임새를 발휘하였고 화관의 화려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흑운 같은 허튼 머리 반달 같은 화롱새로 아주 살살 흘러 빗어 전반같이 넓게 땅아 옥롱잠, 금봉채로 사양머리 쪽졌는데, 석옹황진주도심 산호가지 휘얼근 도투락뎡기 맵시 있게 달았으니...’³⁾

위의 글에서는 땅은 머리에 관한 것으로 양쪽 귀밑머리를 땅아 뒤에서 모아 다시 변발하여 늘리고 끝에는 뎡기를 늘어뜨린 것을 알 수가 있다.

관례를 올리지 않은 처녀 총각의 전통머리 모양으로 양쪽 귀 위에 귀밑머리를 땅아 뒤에서 다시 모아 변발 후 끝에 늘이고 뎡기를 매었다. 처녀들은 주로 제비부리뎡기를 사용하였다. 이는 변발 후 끝에 드린 것으로 홍색이고 총각의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하였고 연령에 따라 다른 것을 사용하고 금박을 넣기도 하였다. 땅은 머리는 머리를 앞이마의 한 가운데서 좌우로 가른 다음 양쪽 귀 위에서 귀밑머리를 땅아 뒤로 모으고 세 가닥으로 나눔 뒤에 서로 엮어서 땅아 하나로 엮어 늘어뜨린다. 양반가의 규수들은 귀밑머리로 귀를 가리고 일반처녀들은 귀를 가리지 않았다.

2) 정조실록 권34, 16년 3월

3) 「규합총서」는 빙허각 이씨(憑虛閣李氏, 1759~1824)의 저술

정조의 가채금지령을 보면 '상천의 여인으로 거리에서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자와 공천은 본발로서 머리를 엮는 것을 금한다'라고 했다.

김홍도의 평생도에서 보면 일반 서민도 미혼 때는 기녀와 같은 땡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혼례 후에는 가채가 아닌 본인의 머리로 코머리의 형태를 하던지 풀머리로 쪽을 지었다. 수식으로 두석(豆錫) 혹은 백동(白銅)비녀 목비녀를 꽂은 것이 고작이었다. 비녀는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질의 우열을 가려서 사용하였고 반상을 가려 구별되었다.

세조 원년에 명의 사신이 가지고 온 면복계양(冕服髻樣)은 수발을 가리마에서 좌우 두 갈래로 나누어 묶어 Y자형으로 머리 위에 찰다고 했으니 이것이 흑 큰머리라고 한다면 시작은 세조 원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Y계는 조선왕조 중기 이전에는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후기에 오면서는 와비 및 왕세자빈 이외는 나무로 된 띠구지를 사용하였다. 사람의 머리로 만들면 무겁고 가격도 비싸므로 싸고 가벼운 나무로 모양은 같게 만들었다. 띠구지는 그 길이가 38.5~42cm정도였으며, 폭은 20~23.5cm정도였는데 나무전체를 흑칠 하고 마치 머리를 땡는 것처럼 보이도록 음각이 되어 있었다. 띠구지는 명부(命婦)들이 늘 착용하던 의식용 수발양식으로, 어여머리 위에 띠구지라는 나무로 만든 큰 머리를 엮어 놓은 것인데, 정조 3년(1779)에 생겨났다. 우선 궁중에서부터 가채를 쓰던 것을 나무로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 나무로 된 대용물이 띠구지였으므로 큰머리를 띠구지머리라고도 하였다.(그림 6)



[그림 6] 띠구지
www.naver.com

III. 에도시대(江戸時代)

1. 화장문화(化粧文化)

上代 『日本書紀』에는 얼굴에 점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져 있다.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보이기 위한 연지화장과는 달리 분장용 화장인 무대 메이크업과 함께 얼굴과 몸에 문신하는 풍습도 있었다. 일본에서의 일상적 화장의 시작은 대륙에서부터 백분 제조법이 전해진 이후로서 화화자료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백분과 연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륙에서 백분의 제조법이 전래된 이후 납제의 백분과 수은제 백분, 쌀 등의 곡류 등 이용한 가루 분 등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잇꽃을 원료로 하는 천연식물의 적색 색소인 연지는 멧을 내고자 하는 습관과 함께 사용되어졌다. 頭髮에는 또한 광택이 부여되고 묶어지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식물에서 추출한 점액 불질을 주로 사용했으며, 平安時代⁴⁾에는 한방사상에 따른 백발염색 방법 등이 일부 소개되었다. 平安時代 전기 이후에는 백분을 바르고, 눈썹을 뽑고, 치아를 검게 하는 전통적인 화장법이 확립된 시대로서 대륙으로부터 '하얀 피부가 아름답다'는 개념이 전이됨으로써 여겼으며 볼에 사용한 연지 또한 백분에 섞어 사용하는 등 조합된 제조방법들이 터득되었다.

고대의 奈良時代⁵⁾까지는 미의식에 있어서 중심화장은 아미로서 "초승달 눈썹을 함으로써 귀족문화"각주로의 발달을 가져왔다.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의 형식에 있어서 눈썹을 은 제 족집게로 뽑는 것 자체가 화장을 대신하게 되었다. 鎌倉시대에는 『三十六歌他繪卷』中 務像에서처럼 이마의 발제 점에서 눈썹사이에 눈썹을 크게 인위적으로 그려 넣기 시작했다. 그 후 자기 눈썹보다 눈썹이 굵어지거나 얼굴의 언저리인 발제점 가까이 그려 넣기도 했다.(그림 7)



[그림 7] 에도시대 눈썹
www.naver.com

4) 平安時代 : 헤이안 시대

5) 奈良時代 : 나라시대

특히 “이 눈썹화장은 齒黑(치흑)과 함께 연령, 신분, 미·기혼 등을 제일 잘 나타내는 化粧이었다.” 公家나 平家, 公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齒黑을 하고서 백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는 것은 鎌倉시대⁶⁾에 모아진 『平家物語』등 근기물 이야기에 상세히 적혀있다. 치흑에는 문자 그대로 치아를 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원재료는 철이 사용되었던 것에서부터 쌀뜨물 등을 부패시켜 酪만 들고 그 가운데 오래된 못과 굵은 못 등의 칠편을 넣어서 녹인 치흑수인 철장수와 탄닌을 많이 함유한 오배자분(붉나무 가루)을 섞어서 이를 검게 염색하는 풍습이었다. 이는 平安時代 귀족계급의 여성 성년식에서 행해진 것으로 점차 귀족 남성도 치아를 염색했다. 그밖에 平安時代 후기에는 머릿기름으로 목화기름과 정자라는 식물에서 얻는 방향유인 丁字油가 사용되어졌다. 이 휘발유는 회양목으로 만든 빗에 묻혀 긴 두발에 대한 생육을 위해 빗질을 위한 정발에 필수품이 되었다. 화장수로서는 수세미 액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세안료로서는 쌀겨와 팔가루 등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江戸時代화장에 관한 미의식행위로서는 얼굴의 안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나 가장자리인 발제점에 대한 얼굴선과 포에서의 모다발의 밀착됨으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목선에 두었다. 이시대의 미적 형태는 이마나 목선을 넓게 보여지기 위해 백분가루를 바르거나, 발제선의 잔털을 뽑기도 하였으며 또는 가장자리 머리털에 먹물 등을 이용하녀 어둡게 칠함으로써 발제선의 폭이 작거나 좁게 보여 지도록 하는 화장법을 취했다. 이시대의 미의식은 武家階級을 중심으로 한 미의식에서 여성은 부모와 남편 앞에 나설 때에도 백분을 바르지 않은 맨 얼굴로서는 가족을 대면할 수 없게 했다.

江戸時代に 주로 사용된 납 백분은 초기에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江戸초기에 제조법이 전래되면서 국산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다양한 종류에 따른 미세한 분말상태로 가공됨으로서 새로이 조합된 백분이 그 시내의 유명한 歌舞伎배우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歌舞伎라는 상표로 판매되었다. 연지(紅)는 잇꽃인 홍화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주로 입술연지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백분에 섞어 붙연지로서도 사용되었다.

입술연지(口紅)를 “홍일돈, 금일돈”이라 하여 홍화 한 돈에 금 한 돈이라 하여 홍화와 금이 맞먹는다는 뜻을 가진 고가품으로 취급했다. 특히 武家에서는 입술에 진하게 바르는 것을 싫어했다. 江戸時代시대 후기에 와서는 목선이나 이마에 검은 칠을 하고 소량의 연지를 얇게 또는 짙게 바르고 봉선화와 팽이의 밥을 사용하여 손톱에 붉게

물들이는 방법 등 검푸른이라는 뜻의 笹色紅 화장법이 유행했다.⁷⁾

2. 수발문화

1) 남자

① 辰松風(타즈마쯔풍)

정보년간(享保年間 1716-1736) 진송팔랑 병위(辰松八郎兵衛)라고 하는 광대가 고안한 상투이고 畫期的(획기적)이라고도 했다. 이 鬚髮은 후의 鬚髮의 형태의 기본이 되었다. 인형을 다루는 광대가 인형을 거꾸로 들어올려 춤출 때 상투의 귀밑머리 끝이 밑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투를 높게 하고, 상투 끈을 많이 감아서 바늘로 고정했다

「옛날 남자의 鬚髮의 풍조 중에서 진송풍이 유행하고 상투는 7-8분 정도로 묶었다.」고 「飛鳥川」에서 말하고 「我衣」의 挿畫(삽화)에는 구레나룻가 짧고 先端(선단: 머리카락 끝)이 가늘어 마치 머리카락 위에서 깎은 듯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남성의 세계에서 이 진귀한 상투 모양을 현재의 풍조라 해서 중기에는 크게 유행 한 것 같다.

이 鬚髮은 뒤에 혼다후우(本多風), 분금후우(文金風)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은 시마다 마게(島田鬻)를 더 높게 빗어 올린 고상하고 화려한 여자의 큰머리 鬚髮으로 혼례 등에 었었다.(그림 8)

② 文金風(분금후우)

文金風(분금후우)는 元文 元年(원문 원년 1736년) 慶長金(경장금)을 주조로 하여 생긴 이름 이라고 한다. 「아의(我衣)」에는 원문 원년에서 유행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금풍(文金風) 이라는 것의 수발 풍은 진송 계



[그림 8] 辰松風(타즈마쯔풍)
大原梨恵子(2000)
『黒髮の 文花史』



[그림 9] 文金風(분금후우)
大原梨恵子(2000)
『黒髮の 文花史』

6) 鎌倉시대 : 가마쿠라시대

7) 大原梨恵子(2000) 『黒髮の 文花史』 築地書館.

통이고 상투에 끈을 많이 감고 상투 허리를 세워서 「마끼빙(卷鬢)이라 칭하는, 밑에서 위로 빗어 올린 귀 앞 털을 사끼야끼(月代)를 할 때 감아 넣었던 것이다」라고 「친자초(親子草)」에서 말하고 또 「아의(我衣)」에서는 淨瑠璃(정류리: 조우루리)太夫의 수발 풍을 모방하고 기름을 발라 상투를 굳혀 머리카락이 갈라지는 곳 없이 상투 끈으로 조금 묶고 귀 앞머리 끝에 대나무 막대기를 넣어 정리하고 있다. 결국 이것에 의(依)하면 남성도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충분히 상투를 묶어 주락을 즐긴 것이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문금풍(文金風)상투의 특징은 진송풍을 개량해서 상투가 높게 경사지고 진송과 바늘이 아나고 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해서 상투 끝을 정리한 것이다. 또 귀 앞털을 빗어 올려 말아 넣고 가르마를 만들지 않는 것도 있고, 심하게 균형을 해쳐 품위를 상실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풍속을 좋아한 사람들은 이른바 통달자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있으며 세상의 남성들은 이 통달자 풍속을 끊임없이 흉내 낸 것 같다.(그림 9)

③ 本多風鬢(혼다후우마게)

徳川家の 家臣인 本多中務少(혼다나카조우가쇼)일족의 사무라이들에게서 생긴 鬚髮이고 상투 밑 부분에 작게 꼬아 묶은 것에 착안, 발전시켜 상투를 박아세운 것 같은 모양을 本多(혼다)풍이라고 칭하게 되고 혼다마게(本多鬢)의 유행은 明和(1764-7)頃까지라고 말하고 있다. 혼다마게의 종류는 明和(메이와)期에 있어 여러 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고 古來之 本多鬢, 丸鬢本多(고래지 본다곡, 환곡본다) 등 고풍스럽고 기품이 있는 상품의 상투로부터, '疫病(역병)本多(에끼보우혼다)'鬢 '金魚本多 五分下本多(고혼게혼다)'鬢 등 가장 하품인 것도 있고 '에끼보우(疫病)혼다' 와 같이 병후머리카락이 빠져서 빈약해진 상태를 보이며, 최선을 다해서 병을 치료하여 겨우 治癒(치유)된 모습이 기품과는 관계없는 계층에서 유행 했다.

상류사회에서는 평상시도 丸鬢(마루마게) 혼다와 兄様

(코유요우)혼다를 했으며, 예장에는 丸鬢(마루마게)혼다를 했다. 또 이외에 金魚(킹교)혼다, 浪速(랑속:로우 소쿠)혼다 등이 있고, 이것을 칭해서 本多八体(혼다 하찌따이) 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江戸(에도) 중기는 거의 전기와 대동소이 하고, 다만 자기의 연령, 기호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고 통달자 등이 최초 진기함을 뽐내는 취미가 점차로 세련되면서 각각 자기에 적당한 鬚髮 문화가 되어 간 것이다.(그림 10)

2) 여자

① 横兵庫(요꼬효우고)

변함없는 유녀의 鬚髮으로써 이 시기에도 존재 했다. 초기에 묶여져 있던 횡병고를 우측 옆으로 쓰러뜨리고 나머지 머리카락으로 좌측에 한개 더 상투를 만들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 좌우 대칭이 생기기 전에 한쪽으로만 쓰러트린 상투였다는 것이 서기 1751-1764년 간에 존재하고 있고 서기 1762년 발간된 「歌舞伎事始(가무기사시)」 권2의 가발그림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양쪽 병고의 고리가 만들어 진 것에 의해서 고리가 커다란 모양으로 변한 것은 江戸(에도) 후기인 서기1804-1830년의 일이다. 이 시대는 상투는 크고 넓어졌어도 아직 이 横兵庫(요꼬효우고)는 작고 머리에 얹어져 있고 이와 같이 양쪽에 갈라진 兵庫鬢(효우고마게)를 兩兵庫(류우효우고) 또는 二兵庫(후따쵸효우고)라고 불렀다.(그림 11)

② 根下兵庫(네사가리효우고)

원록경 초기에는 繁盛(번성)했던 兵庫鬢(효우고마게)도 완전히 쇠퇴해 年増의 여성들만이 할 뿐 이었지만 「百人女郎品定」에는 吉原의 太夫(에도시대의 최고급창녀)나 매실 찻집의 창녀가 이 병고형 상투를 했다. 여하튼 말기에 가까울수록 화려하고 현란한 효우고(兵庫)는 아니고 머리카락



[그림 10] 本多風鬢(혼다후우마게)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 文花史』



[그림 11] 横兵庫(요꼬효우고)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 文花史』



[그림 12] 根下兵庫(네사가리효우고)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文花史』



[그림 13] 結美立兵庫(무수비타대효우고)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文花史』



[그림 14] 우쓰오 兵庫(우쓰오 효우고)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文花史』

뿌리가 밑으로 처진, 작게 만든 兵庫(효우고)이다.

이 상투는 유녀 등이 매우 선호했던 것 같고 이 시대의 여러 그림에도 많은 根下兵庫(네사가리 효우고)를 볼 수 있다. 목덜미에 가까운 후두부에 작게 상투를 만들어 금방이라도 풀어질 것 같은 불안정한 결발은 떠돌아다니는 직업 여성들이 즐겨 했다.(그림 12)

③ 結美立兵庫(무수비타대효우고)

경도의 도원에서 유행해서 유녀에 의해 행하여졌으며, 효우고마개를 세워서 다시 한번 구부린 것이고 종래의 兵庫(효우고) 보다 기교적이었지만 일반여성들에게는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그림 13)

④ 우쓰오 兵庫(우쓰오 효우고)

거리의 여자가 한 것 이었다. 島田髷(시마다마게)와 같이 한 개의 상투꼬리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남은 머리카락으로 앞부분에 勝山髷(가쓰야마마게)와 같은 고리를 만든 것인데, 그 모양은 「當世 加髷雛(당세가체추)形」에 실려 있다. 비녀와 수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후세의 꽃 비녀(화계)를 꽃아도 島田(시마다)에 준하는 품격이 있는 수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江戸(에도) 후기에 들어서는 兵庫髷(효우고마게) 라고 하면 花魁(화괴)가 결발을 하고 있던 横兵庫(요코효우고) (경판이나 연극계에서는 입병고)가 대표적인 수발이 되고 이와 같은 수발형태는 감춰졌다.(그림 14)

⑤ 投島田(나게시마다)

도전은 본래의 형태는 뿌리가 내려가 있어서 만든 상투 끝이 위쪽을 향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遊廓(유곽)에서 주로 행해졌던 것도 점차 유행이 늦어지게 되어 대신에 형태도 온화하게 변화해 이윽고 일반 여성이 묶기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의 기녀들도 한 것으로 보이고 西紀 1780年 9月 竹本座(죽본좌)가 초연 한 연극 近松半二(근송반이)의 「新版歌祭文(신판가제문)」에서 사랑에 배신당한 히카리(光)가 머리카락을 자르



[그림 15] 投島田(나게시마다)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文花史』

는 장면에서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愁嘆場(수탄장 : 근심하고 탄식하는 곳)이 되었으며, 이것에 의해서도 초기에 있어 投島田(나게시마다)는 극히 어른스러운 형태로 변화해서 안정되고 서민의 딸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그림 15)

⑥ 小方島田(코망시마다마게)

奴島田(앗꼬시마다), 高島田(타카시마다) 라고도 한다. 또 奴髷(앗꼬 마게)라고도 불려 강호 후기 에는 유녀나 마을 처녀도 이 상투를 했다. 중기에는 유곽의 어린 계집종(童女)이나 거리의 무희등도 이 수발을 했던 것이 「百女女郎品定」에도 나와 있다. 高島田(타카시마다) 과 거의 같지만 이 島田(시마다)은 뿌리를 상투 끈으로 높게 감아 올려 묶어 앞과 같은 형태라 칭했다. 여전히 이 奴島田(앗꼬시마다)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大坂島, 内饅谷의 木津屋五兵衛 라고 하는 사람의 딸로 본명을 雪(유끼)라고 이름 올리고 여자이면서 험괘 같은 짓을 해 이 여성에게 奴의 小方(앗코노고망) 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이 소만을 좋아해서 결발한 것이 뿌리가 높은 기품 있는 島田髷(시마다마게) 였다. 하지만 '이 상투는 그녀가 고안한 것은 아니고 그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여자의 결발형에 붙인 이름이다.'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이 小方(고망)의 활달하고 화려한 상투는 몇 부림을 선호하는 유흥가에 받아들여



[그림 16] 小万島田鬢(코망시마다마게)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 文花史』



[그림 17] 辰松島田鬢(타쓰마쯔시마다마게)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 文花史』



[그림 18] 小枝島田(고에다시마다)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 文花史』

지는 것에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그림 16)

⑦ 辰松島田鬢(타쓰마쯔시마다마게)

어전에서 근무하는 소녀가 묶은 수발형태이고 이 때의 포는 長鬢(시이타게타보)이다. 이 「타쯔마쯔 시마다」는 享保(향보) 연간(1716-36)에 진송 팔랑병위라는 광대가 고안한 남자상투형을 島田(시마다)에 응용한 것이다. 이 상투가 후에 文金高島田(봉깁다가시마다)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은 남성의 文金風(봉깁후우)과 동 시기에 있었던 文字金(모지가네)의 改鑄(개주)가 이 상투의 명칭의 유래가 되어 뿌리를 높이 묶은 상투를 文金風(봉깁후우)이라고 했다. 무가나 호상의 腰元(요원~원로)은 품격이 높은 이 상투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했다.(그림 17)

⑧ 小枝島田(고에다시마다)

견실한 가정의 처녀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當世 加鬢 雛形』에서 볼 수 있을 뿐 이상투를 한 여성의 기록이 별로 없는 것에서 당시는 일반 처녀에게도 사용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그림 「고에다시마다」에서는 확실히 燈籠鬢(등롱빈:도우로우빈) 대그릇 등과 같은 둥글게 부풀린 귀 앞 머리털을 볼 수 있다. '이 상투는 극히 어른스러운 균형이 잡힌 수평형태이고 생활이 안정된 가정집의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그림 18)

⑨ 切炭島田(키리즈미 시마다)

이 상투의 특징은 극히 작은 상투라는 것이다. 이름처럼 切炭(키리즈미)를 닮은 모양이고 죠콘을 빌려온 것 같은 상투라고 당시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화류계 방면의 모양이다.(그림 19)

⑩ 카시마屋島田(카시마야시마다)

유곽에서 유행한 것 같은 것이 카시마야(屋)라는 유곽의 옥호이다. 고망시마다(小万島田)와 같이 상투가 높은



[그림 19] 切炭島田(키리즈미시마다)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 文花史』



[그림 20] 카시마屋島田(카시마야시마다) 大原梨恵子(2000) 『黒髪の 文花史』

것이 특징이며, 당시의 상투 묶는 방법은 평원결로 묶었는데 평평한 끈을 걸어서 위에서 묶는 것과, 밑으로 처지게 걸어서 내리는 것이 있고 가는(細) 상투 끈을 묶는 것도 있지만 總體的(총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서 장식하는 것은 유곽 등에서 많이 보여 일반적으로 사용된 장식법은 아니며, 멋을 부린 화려함을 가진 髮形이다.(그림20)

<표 1> 정조시대와 에도시대의 비교

문화 시대	정조시대	에도시대
화장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늘고 반달눈썹 연지로 입술표현 아이쉴도우 같은 색조화장 버들눈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굴에 백분가루 발제선의 잔털 제거 발제선의 쪽을 좁아보이기 위한 먹물 화장 입술연지 사용 연지와 백분을 섞어 불연지로 사용 색홍화장법유행
수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투 얇은머리 트레머리 쪽진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辰松風(타쯔마쯔풍) 文金風(봉깁후우) 本多鬢(혼다마게) 横兵庫(요코히요고) 兵庫(히요고) 結美立兵庫(무수비타대히요고) 우쯔오 兵庫(우쯔오 히요고)

IV. '바람의 화원'의 화장과 수발형태

1. 김홍도(박신양)

드라마에 나오는 김홍도는 그 시대에 맞는 복식과 수발형태와 화장을 하고 나온다. 사극이라 실제의 피부보다는 약간 어둡게 표현되었다.(그림 21)

2. 신윤복(문근영)

남자 신윤복으로 나올 때는 김홍도와 그다지 다르게 차이는 없지만 여자로 나올 때의 신윤복은 가체를 올려 나왔다. 가체금지령을 내렸던 정조 시대이지만 아직 완전히 가체가 없어지지 않은 혼란기였다. 그래서 족두리를 대신하여 사용하여 장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여자로 나오는 신윤복은 그렇게 연출되진 않았다.(그림 22)



[그림 21] 김홍도
www.sbs.co.kr



[그림 22] 신윤복
www.sbs.co.kr



[그림 22-1] 여자 신윤복
www.sbs.co.kr

3. 기생(정향)

기생은 가체금지령을 내렸더라도 화려하게 장식을 했을 뿐 만 아니라 그 시대 유행했던 화장법을 그대로 전수하였다. 그 때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생은 화려하게 묘사되어있고 초승달 같은 눈썹과 흰 피부, 붉은 입술로 연출되어져 나온다.(그림 23)



[그림 23] 기생
www.sbs.co.kr

4. 정순왕후(임지은)

가체금지령을 내린 시대이지만 기록들을 보면 정순왕후는 가체를 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가체가 없어진 것은 순조 때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정순왕후는 접지⁸⁾를 하고 나온다. 앞의 글에서 논의 했듯이 첩지를 하고 나올 것이 아니라 정조 3년(1779)에 생긴 나무로 만든 띠구지를 하고 나온 것이 고증에 의한다면 맞을 것이라 사료된다.(그림 24)



[그림 24] 정순왕후
www.sbs.co.kr

8) 접지 : 왕비는 도금으로 봉(鳳)모양, 내명부. 외명부는 도금. 은(銀) 또는 흑각(黑角)으로 좌우에 긴 머리 단 것을 말하는데 가리마 중앙에 맞추어 양쪽으로 내려 땅아서 뒤에서 머리와 함께 묶어 쪽을 진 것이다. 이 첩지의 장식은 화관이나 족두리 쓸 때의 공정하는 역할도 하고 신분을 나타낼 때도 사용.

V. 결론

정조시대의 화장문화는 여인의 화장이 전 시대에 비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생들의 화장은 머릿기름을 윤기 있게 바르고 눈썹을 다듬어 반달처럼 가늘게 그리며 뺨은 복숭아처럼, 입술은 앵두같이 연지를 칠하는 것이었다. 눈 화장이 매우 발달해 미묵(眉墨)으로 검게 칠하던 이전과는 달리 아이 섀도우 같은 색조화장이 성행했다. 눈썹의 곡선은 당시 버들눈썹이 유행이었다.

수발문화는 서민층에서는 제 머리만으로 얹은머리 트레머리와 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양분하여 각각 땀아 좌우로 어긋나게 틀어 앞으로 장식대기를 오른쪽에 매었다. 평·서민 부녀자들은 가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머리로 만든 고계나 앞이마 쪽에 얹은머리 또는 뇌후의 쪽진 머리 등이 있었다.

쪽진 머리제는 정조 재위 중에는 완전히 실시를 보지 못했으며 순조 중엽에 가서야 서서히 이루어졌다. 관례를 올리지 않은 처녀 총각의 전통머리 모양으로 양쪽 귀 위에 귀밑머리를 땀아 뒤에서 다시 모아 변발 후 끝에 늘이고 땀기를 매었다.

江戸時代시대에는 화장에 관한 미의식행위로서는 얼굴의 안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나 가장자리인 발제점에 대한 얼굴선과 포에서의 모다발의 밀착됨으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목선에 두었다. 미적 형태는 이마나 목선을 넓게 보이게 위해 백분가루를 바르거나, 발제선의 잔털을 뽑기도 하였으며 또는 가장자리 머리털에 먹물 등을 이용하여 어둡게 칠함으로써 발제선의 폭이 작거나 좁게 보여 지도록 하는 화장법을 취했다. 주로 사용된 납 백분은 초기에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江戸초기에 제조법이 전래되면서 국산화가 시작되었다. 연지(紅)는 잇꽃인 홍화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주로 입술연지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백분에 섞어 불연지로서도 사용되었다. 武家에서는 입술에 진하게 바르는 것을 싫어했다. 후기에 와서는 목선이나 이마에 검은 칠을 하고 소량의 연지를 얇게 또는 짙게 바르고 봉선화와 팽이의 밥을 사용하여 손톱에 붉게 물들이는 방법 등 검푸른이라는 뜻의 色紅 화장법이 유행했다.

남자의 수발형태는 辰松風(타쯔마쯔풍)으로 인형을 다루는 광대가 인형을 거꾸로 들어올려 춤출 때 상투의 귀 밑머리 끝이 밑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투를 높게 하고, 상투 끈을 많이 감아서 바늘로 고정된 형태이다. 文金風(분깡후우)는 元文 元年(원문 원년 1736년) 慶長金(경장금)을 주조로 하여 생긴 이름 이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해서 상투 끝을 정리한 것이다. 그 외에 사무라

이들에게서 생긴 鬚鬚이고 상투 밑 부분에 작게 꼬아 묶은 것에 착안, 발전시켜 상투를 박아세운 것 같은 모양을 本多(혼다)풍이라고 칭하게 되고 혼다마게(本多鬘)라 하였다.

根下兵庫(네사가리효우고)는 여자는 横兵庫(요꼬효우고) 변함없는 유녀의 鬚鬚이다. 화려하고 현란한 효우고(兵庫)는 아니고 머리카락 뿌리가 밑으로 처진, 작게 만든 兵庫(효우고)이다.

結美立兵庫(무수비타대효우고)는 경도의 도원에서 유행해서 유녀에 의해 행하여졌다. 그러나 크게 유행하지 않았다. 우쓰오 兵庫(우쓰오 효우고)는 거리의 여자가 한 것으로 江戸시대후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이외에도 많은 형태의 수발형태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동시대의 화장과 수발형태를 비교 해보면 이웃한 나라이지만 서로 공유하거나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대에는 김홍도와 신윤복을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되었고 그 문화를 그림으로 정조시대에 전하여 겹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관성이 없이 문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 나타난 화장문화와 수발문화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고증한 바와 다르게 제작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기 전 당 시대의 문화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필요 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앞으로 제작되어질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정조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화장과 수발문화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주제어 : 색조화장, 가체금지령, 쪽진 머리, 얹은머리, 연지

참 고 문 헌

- 고경숙(2004). 조선과 에도시대 두발양식 및 화장 비교연구. 한남대 사회문화 과학대학원 석사논문. p.61.
- 공차숙, 김희숙(2005). 신윤복의 풍속화에 나타난 조선시대 미용문화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 6(2) p.21~37.
- 김동욱(1979)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아세아문화사.
- 김민경(2008) 영·정조시대의 화장문화와 발형에 관한 연구.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2(3) p.5~17.
- 김필동(1999). 차별과 연대-조선사회의 신분과 조직. 문학과 지성사.
- 김희숙(2000).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p.

18-20

석주선(1980). 한국복식사. 보진제. p.77

신혜원(1998).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인상 연구. 숙명여자대학 석사논문.

이씨 「규합총서」는 빙허각 (憑虛閣李氏, 1759~1824)의 저술

안인희·유송옥(2003). 소설 '춘향전'을 통해 본 조선 후기의 복식, 머리모양, 화장의 계층별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 4(1) p.47~62.

유태영. 구소청. 교양국사연구회 엮음(1997). 한권으로 정리한 이야기 조선 왕조사. 청아출판사

이경선, 김희숙(2003). 한국과 중국 여성의 화장문화에 나타난 연지 화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

회. 4(2) p.17~44

이부영(2006). 조선시대 여자 수식(首飾)에 사용된 장신구에 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 7(2) p.59~71

이연복, 이경복(2000). 한국인의 미용풍속도. 월간 에세이

최춘자(1995). 장신구의 세계, 도서출판 예경.

高橋博信 『世繪美人ぐらべ』. (東京:ポラ文化研究所, 1999), p. 18.

大原梨惠子(2000) 『黒髪の 文花史』 築地書館. p. 45~78

www.naver.co.kr

www.sbs.co.kr

(2008. 12. 10 접수; 2009. 2. 12 채택)